메시지 12

새 예루살렘이 됨

성경: 계 3:12, 19:7, 21:2, 9-11, 22, 22:17

Ⅰ.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생활을 위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 계 21:9-11.

A.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나의 실체로 연합되고 섞이고 건축되어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모든 구성 요소들은 동일한 생명과 본성과 조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단체적인 한 인격이다 — 요 14:20, 23, 계 21:2-3, 9-23.

B.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심 이상과 신성한 계시의 고봉의 완결이다 — 계 21:2, 9-11.

1. 성경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과 연관된다 — 계 21:2, 3:12.

a.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은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받은 사람이 함께 연합되고 조성되어 한 실체, 곧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 계 21:3, 22.

b. 결국 삼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합병되심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을 통해 새 예루살렘이 된다 — 롬 5:10, 계 3:12.

2.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사람들, 곧 신화(神化)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 요 3:6, 히 2:11, 롬 12:2, 8:29-30.

a. 우리가 신화된다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기 위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계 21:11.

b. 믿는 이들의 신화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일종의 과정이다. 이것이 가장 높은 진리이자 가장 높은 복음이다 — 롬 1:1, 3-4, 5:10, 계 21:2, 3:12.

3. 새 예루살렘은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과 표현, 곧 단체적인 하나님이다 — 롬 8:29, 히 2:10-12, 계 4:3, 21:10-11.

a.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건축된 백성으로 확장되시고 표현되신 것이다 — 계 21:10-11.

b.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표현, 곧 단체적인 하나님이다 — 창 1:1, 요 1:1, 14, 고전 15:45하, 계 22:17.

Ⅱ.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 계 21:9-10.

A.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 계 21:2.

1. 새 예루살렘은 신부인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단체적인 한 인격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2.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로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배필이다 — 계 19:7.

B.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로맨스의 궁극적인 완결, 곧 우주적인 한 부부,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이다 — 계 22:17.

1. 성경의 주제는 우주적인 한 부부의 신성한 로맨스이다.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 자신이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이다 — 사 54:5, 렘 2:2, 3:1, 14, 31:32, 호 2:7, 19, 요 3:29, 고후 11:2, 계 19:7.
2. 신성한 로맨스는 아가에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아 1:2, 8:14.
   a. 추구하는 이는 과정을 거쳐, 솔로몬의 복사판이자 새 예루살렘의 상징인 술람미가 된다 — 아 6:13, 4.
   b.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모두를 포함하는 단체적인 술람미일 것이다.
3. 그리스도의 약혼과 결혼 생활은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와 영원 시대를 망라한다.
   a. 교회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다 — 고후 11:2.
   b. 결혼식 날은 천년왕국 시대일 것이다 — 계 19:7.
   c. 결혼 생활은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이다 — 계 21:2, 9-10.
4. 새 예루살렘은 하루와 같은 천 년(벧후 3:8) 동안 있을 천년왕국에서는 신부일 것이며, 그 후 영원토록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내일 것이다(계 21:2).
   a. 천년왕국에서의 신부는 이기는 성도들만 포함할 것이다 — 계 3:12.
   b.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아내는 구속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을 포함할 것이다 — 계 21:7.

C.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우주적인 한 부부가 될 것임을 보여 준다.

1.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총체이신 그 영은, 이제 완전히 성숙되어 그분의 신부가 된 믿는 이들과 하나 되신다 — 비교 엡 4:13, 15-16.
2.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백성의 완결은 하나 되어,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주적인 한 부부가 될 것이다.

D. 회복된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 계 3:7-8, 12.

Ⅲ. 주 예수님은 회복된 교회 안의 이기는 이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곧 삼일 하나님 자신 안으로 건축된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 계 3:12상, 21:22.

A.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삼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실 것임을 본다.

1. 이기는 이가 성전 안에서 기둥이 되는 것은 삼일 하나님 안에서 기둥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 계 3:12상.
2. 이것은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과 연관된다 — 엡 3:16-17상.

B.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써, 곧 우리의 타고난 요소를 가져가시고 그것을 그분의 신성한 요소로 대치하심으로써 우리를 기둥들이 되게 하신다 — 롬 12:2, 고후 3:18.

1.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은 우리를 무언가로 조성하는 것, 곧 창조의 방식으로 우리를 건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오늘날 교회생활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들로 만들고 조성하기를 갈망하신다.

C. 회복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둥들로 조성하시는 것이다 — 엡 3:16-17상, 계 3:12상.

Ⅳ. 회복된 교회 안의 이기는 이 위에 주 예수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분의 새 이름을 기록하실 것이다 — 계 3:12하.

A.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이기는 이 위에 기록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께서 이기는 이를 소유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성(새 예루살렘)과 주님 자신, 이 모두가 이기는 이에게 속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기는 이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B.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그 성 자체를 가리키며,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 계 3:12하.

C.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이기는 이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새 예루살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 이 모두가 이기는 이 안으로 일해 넣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 요 14:19-20, 23, 엡 3:16-17.

D. 새 예루살렘을 이기는 이에게 주는 상으로 언급하신 것은 이 약속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천년왕국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오직 이기는 이들에게만 주는 상이 될 것이다 — 계 3:12하.

© 2023 Living Stream Ministry